

2012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문학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12.06(화), 10:00~15:00 (인터뷰심의 병행추진)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유안진, 성석제, 오생근, 박상우, 이성겸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기관지를 포함하여 총 88건의 문예지가 지원신청 되었다.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심의위원이 각자 재택 검토하여 지원신청한 문예지의 방향성이 명확한 지, 방향성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충실하고 타당하며 효과적인 지, 문예지를 통해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와 단체로서의 역량과 경험은 구비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심의 당일에는 견본 문예지를 통해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며 심의를 진행하였다.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문예지의 본래적 성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으며, 내용적인 면에서 글의 수준, 문학성, 다양성, 참신성, 독창성 등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 지를 꼼꼼히 평가하였다.

아울러 문학 저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되고 있는 지를 감안하였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문예지를 우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문학의 창작 기반이 되어 온 문예지를 배려하였다.

기관지의 경우 장르별 1개의 대표적인 기관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의 경우 문예지의 종류가 많아서 예외적으로 우수한 잡지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장르별, 전문지와 종합지별, 서울과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문학창작역량의 강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록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과 필자의 균형적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세심하게 살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지원사업에는 총 19건의 사업이 지원신청되었다.

공모요강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조사연구의 성격을 갖는 신청은 부득이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우리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성과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신청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과 그에 적합한 체제와 형식,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세미나의 경우 실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였으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유의미한 모임과 발전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우리 문학의 외연확대를 위해 해외 동포들과의 만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전체적으로 예술 정간물으로서의 충실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조사연구 사업으로서 합당한 지를 살펴 심의하였으며 지원신청 단체의 실적과 경험, 사업운영 능력을 검토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의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은 총 8건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2건이 선정되었다.

본 사업 지원심의회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충실성과 파급효과, 구체성 위주로 신청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청 사업이 해외 문학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 선정에 고려하였다. 특히, 재외동포사업의 경우 국내단체의 행사가 단순히 해외에서 개최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의 문학 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고 발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은 총 1건이 신청하였으며 지원동기 및 지원프로그램이 작가에게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의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의 기획의도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은 총 15건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총 4건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충실함을 우선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병행된 인터뷰 심의를 통하여 지원자의 준비성과 현지언어소통 능력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지원자의 역량이 파견국가의 문학계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하는 해외창작의 결과가 우리문학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들의 경합이 이루어진 본 사업에서는, 지원자의 동기와 열정도 선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지원자들에게 본 사업의 참여가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발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심의 결과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에는 김향라(필명 김이듬, 시인), 김혜정(소설가)을, 터키 앙카라대학교에는 최진아(극작가)를,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에는 김성중(소설가)을 최종 선정하였다. 미선정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러시아 사할린대학교 및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사진작가 1인)의 파견작가는 2012년 상반기 추가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12.05(월), 10:00~15:00(1차), 12.09(금), 10:00~15:00(2차 인터뷰심의회)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원방, 김정희, 김찬동, 유진상, 윤익

<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가진 전문지와 전문단체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되, 내용의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발간물의 경우는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진지하고 창의적 내용과 시사감각을 가진 정간물로 해당분야에 파급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예술정간물의 공공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정보효과가 커다란 매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자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출판하고 있는 비영리적 목적의 출판물들도 주목 했다. 출판의 내용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독자성이 결여되어 기존의 출판물들과 차별화 되지 못한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

단행본의 경우, 탁월한 연구도 부족하였으나 사업공모의 취지에 따라 단행본의 경우는 사업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조사연구활동 역시 정간물의 선정 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연구활동의 주종을 이루는 학회활동의 경우, 학회의 난립과 학술진흥재단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학회지 발간사업보다는 세미나, 심포지엄등 학회 학술활동을 치중하여 선정하였다. 아울러 학술활동의 경우, 사진이나 서예등 취약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시각예술행사지원 >

2011년도부터 국고 이관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개방형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첫 해여서인지 사업홍보가 다소 미흡한 관계로 사업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전이나 일반적인 단체전 등의 사업 신청이 많았고, 사업성격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원공고 기준에 따라 전국규모의 페스티벌형 사업을 중심으로 2년 이상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을 선정하되, 예술적 수월성과 분야에 대한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의 경우도 전국규모 축제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보다는 종전의 일상적인 사업들과 차별화가 미약한 경우로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종래 국고지원을 받아 수행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거나 사업의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등급을 적용 지원 결정하였다.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시각예술 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총 68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22건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교류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했으며, 교류를 통한 파급 효과, 신규 교류국가의 개척이나 프로그램의 참신성에도 초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들은 참가작가나 교류기관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의 시 참여 작가나, 큐레이터, 행사 기관은 물론, 교류국과의 문화예술 교류 의미, 기획안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예산안의 적절성, 포트폴리오 등을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비슷비슷한 수준의 개인전보다는 가급적 카셀 도큐멘타, 국제 비엔날레 등 의미 있는 국제 행사 참여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총 3건이 신청되었으나, 예술적 수월성 및 본 사업의 기획 의도를 만족시키는 사업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의도 및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본 사업의 경우 명망 있는 해외예술인 초청 및 원만한 행사 진행 등을 위해서는 주최측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해외 초청인의 개인적 명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청기관의 역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 이루어지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미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작가지원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작가지원 사업은 총 19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이 중 9건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신진 작가들에게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의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작가의 잠재력, 초청 기관의 지명도,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개척에 중점을 두었다. 포트폴리오 심의를 통해 작품의 현대성, 실험성과 해외

에서의 평가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원자가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의 활동은 어떠한가, 지원자의 참여를 통해 향후 한국 작가들이 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만큼 작업 수준이 예술적으로 뛰어난가 등의 여부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신청자의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중복 지원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선정된 경우에도 과도한 예산 신청의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였다.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

시각예술 분야 해외창작거점 예술가 파견 지원사업의 경우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및 영국 가스웍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의 경우 현지 기관과 예술위의 협약에 따라 예술위 측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일정 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들의 영문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통해 현지에서 각각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건수는 총 61건이며 이중 베타니엔 스튜디오는 33건, 가스웍스는 27건이었다.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1차 심의를 통해 1.5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여 베타니엔 스튜디오의 경우 6인, 가스웍스는 5인의 후보를 선정하였다.

해외 거점의 유력 공간에 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려 파견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전략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심의 시에는 지원자의 의욕, 적극성, 프리젠테이션 방법, 자신의 작업 개념의 전달, 작품의 수준, 외국어 능력(참고) 등을 감안하였으며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작업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베타니엔 스튜디오의 경우 비교적 긴 기간인 1년 동안 자신의 조형 예술적 세계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에 비해 가스웍스의 경우 파견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은 만큼 현지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완성도 수준과 작가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12.13(화) 10:30~16: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이병훈, 김성희, 송현옥, 황치준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14건이 지원신청되어 4명이 참석한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6건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지원신청 사업 중에는 지원신청 안내서에 명시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업이 더러 있었다. 정간물발간사업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전문지가 아닌 일회성 도서 발간은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도서 발간 신청 사업이 있었고, 조사연구활동사업은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는 주요단체의 조사연구활동으로 제한하였는데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의 신청이 있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먼저 걸러내고 신청 사업을 차례대로 검토한 결과, 정간물발간사업 3건과 조사연구활동사업 3건이 선정되었다.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해온 사업을 중시하였고, 연극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모두 연극계의 다수 인사가 참여하는 협회 성격의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극계 전체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예술행사지원>

2011년도에 조기 공모한 2012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연극분야에는 총 22건이 지원신청되어 4명이 참석한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15건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2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 및 기획행사 중에 지속적 육성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2010년도에 사업을 수행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를 받은 점수를 70%로 반영하고, 책임심의위원회 토론 후 각자 채점한 점수를 30%로 환산 반영하였다. 2010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가 없는 행사는 전적으로 책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다. 지원신청을 취소한 1개 사업과 개별 극단의 단순한 작품 공연 3건은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원사업 안내를 잘 살피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

다.

22개 신청 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15건을 지원결정하였다. 금년도 신규 신청 사업 중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행사는 없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연극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총 37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12건을 선정하였다.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공연을 우선 선발하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연도 일부 선정하였다.

세계의 유명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단체의 경우 초청 페스티벌의 예술적 역량과 국제적 신임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초청 조건의 우수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세미나나 회의의 경우 국제기구 회장직 수행을 위한 사업과 의미있는 국제 총회에 참석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그램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그램지원 사업의 경우 총 2건이 신청되었고, 2건 모두 지원을 결정하였다. 내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기 계획의 명확성, 추진가능성, 준비상황, 신청단체 예술역량, 상대국의 의향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하였다. 서울연극협회 신청사업의 경우 향후 서울연극제의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결정하였다.

자과리 유랑극단의 유럽순회공연을 위한 사전 준비 역시 특성있는 민속극의 해외진출 및 문화교류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결정하였음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총 2건이 신청되었고, 2건 모두 지원을 결정하였다. 본 사업의 취지가 신진 작가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과 참가 신청자의 개인적 역량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신청된 2개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의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원을 결정하였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12.16(화) 10:30~15: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1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양정수, 정은혜, 박희태, 유인화, 황치준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12건이 지원신청되어 5명이 참석한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6건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간물발간사업은 7건이 지원신청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월간지 3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지원액은 차별화 하였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정기간행물이 아니라 심의에서 제외 되었고, 3건은 지원대상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하였다. 조사연구활동은 4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에서 한국춤평론가회와 한국춤비평가협회에 각각 400만원씩 지원 결정하였다. 한국무용예술학회에서는 학술대회와 무용예술학연구 발간사업을 병행 신청하였는데, 학술대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400만원 결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지원 신청한 12개 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용계 전체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공연예술행사지원>

2011년도에 조기 공모한 2012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무용분야에는 총 10건이 지원신청되어 5명이 참석한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8건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 대비 80%를 선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 비율이 30~40%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이 사업의 선정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 및 기획행사로서 3년 이상 수행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연례적인 행사만 주로 신청한 결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2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심의기준으로 검토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 및 기획행사 중에 지속적 육성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2010년도에 사업을 수행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를 받은 점수를 70%로 반영하고, 책임심의위원회 토론 후 각자 채점한 점수를 30%로 환산 반영하였다. 2010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의 평가가 없는 행사는 전적으로 책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심의위원회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0개 신청 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8개사업에 대해 지원결정을 하였다. 금년도 신규 신청 사업 중에는 춘천댄스페스티벌이 3,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무용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26건이 신청되어 심의를 통해 8건을 선정하였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등 4가지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하였다. 책임심의위원 들은 사무처에서 사전에 보내온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신청된 사업의 경우 지원가치가 있는 사업과 미흡한 사업의 구분이 대체로 분명하였다. 신청된 사업 중 다년간 기획되고 진행되어온 사업과 국제교류 후 기대되는 결과가 좋은 사업을 지원결정하였다.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지원의 경우 총 2건이 신청되었으나, 예술적 수월성 및 본 사업의 기획의도를 만족시키는 사업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2012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의도 및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명망 있는 해외예술인을 초청하는 것과 사업 주최측의 역량도 중요한 사업이다.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무용단체의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 사업이 개발되길 바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그램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그램지원의 경우도 총 2건이 신청되었으나 본 사업의 기획의도를 충족하는 사업이 신청되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중기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예

술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시행 첫 해여서 그런지 본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 신청되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다. 향후 많은 무용인 및 무용단체의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4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이 중 1건을 선정하였다.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지원자의 경력을 우선 지원기준으로 하였고, 향후 예술적 발전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지원자가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타 분야에 비해 해외 레지던스 참가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지만, 향후 더욱 많은 사업이 신청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12.16(금), 10:00~16: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영근, 허미경, 이석렬, 정준호, 김창욱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의 경우, 총 11건이 지원신청되어 총 6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지원신청규모나 선정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 사업은 예술현상에 대한 비평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문지 발간사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예술전문지를 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회성 도서 발간사업이나 단행본 그리고 공연홍보소식지 성격의 발간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격의 신청사업이 많았다.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음악분야에는 총 15건이 신청되어 총 5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 사업의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이다. 지원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첨부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동안 동 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된 사업의 경우, 전년도 개별행사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개최되는 전국단위 범주의 대규모 행사를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회성 공연성격의 연주회나 신규 추진행사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그간 행사개최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예산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음악분야에는 총 38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그 중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미비하거나 국제 교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단체의 국내공연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소수인 경우는 국제교류의 성격이 약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프로그램이나 출연진, 사업 장소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미확정인 경우에도 사업의 충실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행사 역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평가와 함께, 사업계

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가운데 사업의 지속성과 예술적 수월성, 국제교류의 기여도가 높은 10개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원 선정된 사업들이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안배하였다.

< 해외예술인기획초청프로그램 지원 >

해외예술인기획초청프로그램은 기존의 국제교류에서 인바운드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단체의 성과로만 남던 인바운드형 사업을 예술위원회와 전략적으로 연계, 공동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였다. 하지만 신청한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사업 내용이 빈약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번 해외예술인기획초청프로그램 지원에는 선정 대상이 없으며, 다음 공모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들이 지원 신청되기를 기대한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기존의 단년도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2013년 또는 2014년의 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12년에 준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지원 신청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뷰 역시 병행하였다.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준비사업과 본 사업과의 관련성, 각각의 사업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준비사업과 본 사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개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 시 : 2011. 12. 01(목) 10:00 - 12:30
- 장 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정대석, 노복순, 김희선, 김성욱, 이정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예술적 수월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와 아울러 단체의 행사가 전국규모로 이루어져 예술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체의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행사내용의 짜임새와 향후 해당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원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도 심의에 반영하였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우수한 공연단체의 경우 지원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도 이번 심의에서 논의되어 예산의 가감을 받았으며,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사의 경우 여러지역 단체가 모여 추진하는 행사도 이번 사업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다.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실한지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제시된 사업계획이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발간사업의 학술적 수월성을 기준으로 단체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거나 전통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4인 및 내부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자료 검토와 현장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개인)의 발간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2012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전통예술 분야에는 총 45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사업 수행 단체 및 사업 내용의 충실성과 예술적 수월성,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공연, 전시, 학술행사 등 사업 형태별 안배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총 14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그리고 개별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안배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전통예술의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으로 전통예술분야의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단체들의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한 중기기획프로젝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준비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 그리고 사업 실행의 충실성은 높은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소리만들기자의 '역적가의 Next Wave Festival 2013 진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선정 단체는 예술적 수월성이 뛰어나고, 프로그램 역시 국내외에서 검증된 작품으로, 잘 준비하여 향후 해외진출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 >

해외레지던스참가 지원사업 전통예술분야의 선정대상은 1건이다. 지원자의 예술적 수월성과, 해외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한국 전통춤의 국제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창출 계획이 심의 대상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타 분야에 비해 전통예술분야는 해외레지던스 참가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으나, 열의를 가진 젊은 전통예술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들이 신청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2012년 공모사업 (다원예술/예술일반분과) 심의총평

- 일시 : 1차 - 2011. 12. 2.(금) 10:30~19:30, 2차 - 2011. 12. 11.(일) 11:00~20: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강석란, 김미은, 김윤섭, 박호빈, 김윤희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2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다원예술·예술일반 분과 지원심의과정은 1차와 2차 심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별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1차 심의회의에서는 지원심의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과 지원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평가를 하였다. 2차 심의회의에서는 개별적으로 채점한 결과의 최종 합산결과를 확인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후보군을 설정하고 지원금액을 배정하였으며 지원신청건수가 많은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사업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에는 총 260건이 신청되었으며 신청총액은 67억원에 달했다. 260건의 개별신청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아직도 단순 병렬형의 장르결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은 편이었다. 개별 장르들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예술활동이 활발해 짐에도 불구하고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존 주류 장르에서 논의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원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장르들간의 융·복합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예술적 비판정신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인 모색을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 관객과 소통하려고하는 프로젝트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기획프로그램의 실험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다원예술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4개의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

의결과 총 39건의 신청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총 5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의 다원예술·예술일반 분야에는 총 5건이 신청되었으며 신청총액은 5억6천이었다.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예술적 수월성, 실현가능성 등은 물론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와 아울러 단체의 행사가 전국규모로 이루어져 예술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체의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행사내용의 짜임새와 향후 해당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원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도 심의에 반영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 총 2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총 1억천의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사업의 다원예술·예술일반 분야에 신청한 사업은 총 28건이었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기존의 발간 실적과 향후 지속적 발간 가능성과 함께 예술현장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조사연구 활동의 경우 신청사업이 해당 분야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총 11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

2012년도부터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에 다원예술 분야가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장르간 융복합 예술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원예술적 창작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사업이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 이번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사업에는 총 3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 모두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참가계획도 구체적이고 충실한 것이 특징이었다. 신청자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 레지던스 공간들도 독일 베를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이태리 이르피니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사업의 심의기

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예술적 수월성, 실현가능성, 레지던스 참가성과의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3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아무쪼록 다원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 >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창작 역량 강화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장르별 주요 해외 예술인을 초청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예술위원회와 함께 기획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2년도 신규사업이다. 다원예술분야는 특히 해외에서 다원예술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창작공간, 정책 관계자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금번 공모에서는 총 4건의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도입취지와 심의기준을 종합 감안하여 3개 사업을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예술위원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아무쪼록 프로그램의 개방성과 공공성이 확대되어 다원예술분야 창작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문화예술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국제교류사업의 사전 준비와 밀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거점이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다원예술분야에는 총 3건의 프로젝트가 신청되었는데 신청사업들 중에는 2013년도 이후의 전시나 공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들도 있었고 다원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위한 리서치 등 기반조성 성격의 중기적 접근의 사업유형도 있었다. 있었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의 도입 취지와 심의기준을 종합 감안하여 변방연극제와 신보슬씨가 제출한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신청자(단체)들이 그동안 다원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해 보여온 프로젝트들의 진중함이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알찬 프로그램으로 화답하리라 기대하며 다원예술분야 국제공동협력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심사평

- 일시 : 2011.12.7(수) 10:30~12: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회의실
- 심의위원(8명)
 - 연극분야 : 이병훈, 황치준
 - 음악분야 : 이석렬, 김창욱
 - 전통분야 : 김성욱, 이정만
 - 다원/예술일반 : 강석란, 김윤희

이번 2012년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총 14건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9건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본 심의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엄격한 환류를 위해, 기존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 대상 중 전년도(2010년) 심층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사업은 평가결과에 70%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책정 예산의 감소로,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없이 동일 수준에서 지원금을 책정하였다.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들인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심의위원 일동